



Value in Motion:

리더가 알아야 할 미래 산업의 재편

AI와 기후 변화 등의 메가 트렌드로 인한 기존 산업의 재편 방향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August 2025

Table of contents

| | |
|------------------------|----|
| 01. 도메인의 등장 | 3 |
| 02. 기회와 불확실성 | 7 |
| 03. 3가지 미래 시나리오 | 10 |
| 04. 재창조를 위한 어젠다 | 13 |

※ 본 보고서는 PwC의 'The leader's guide to value in motion'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들어가며

2023년 초, PwC의 제26차 연례 글로벌 CEO 서베이에서는 눈길을 끄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4,410명의 CEO 중 약 40%가 '자사가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향후 10년 내에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 이후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늘었으며, 성능이 개선되었고, 적용이 활발해졌습니다. 우리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기록상 가장 더운 해를 겪었으며, 지정학적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고, 세계화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탓에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재창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긴박감은 PwC의 리서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PwC는 글로벌 산업의 변화하는 구조를 분석하여, 가치 이동(Value in Motion)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가 트렌드들이 충돌하면서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은 Move(이동), Feed(식음), Care(돌봄), Build(건설), Make(제조), Fuel & Power(연료·동력)로 융복합되고, Fund & Insure(금융), Connect & Compute(연결·컴퓨팅), Govern & Serve(정부 지원)가 이러한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할 것이며, 2025년 한 해에만 7조 달러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Value in Motion은 기업에게 흥미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불확실성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생산성 향상은 2035년 세계 경제 규모를 현재 대비 최대 15%까지 키울 수도 있고, 단 1% 증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 앞으로 10년 동안 기업들이 번영하려면 비즈니스 모델, 운영 모델, 에너지 모델을 혁신하고, 기술과 신뢰, 희소 자원의 확보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경쟁하며, 허들을 재창조의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 모든 변화는 리더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불확실성을 포용하고, 변화를 이끄는 힘들이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담대하게 사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리소스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PwC가 12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한 이 연구가 귀사의 역동적인 10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1

도메인의 등장

오늘날 새로운 도메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19세기 중후반에 형성된 산업 시스템을 짚어 보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경영사학자 알프레드 찬들러는 그의 저서 '보이는 손(The Visible Hand)'에서 경영자 자본주의¹⁾의 등장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기저에서 작용한 요인들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는 석탄을 시작으로 석유, 가스, 전기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가 비즈니스에 적용됨에 따라, 공정,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이 광범위하게 촉발되었고, 그 결과 운송 및 통신의 혁명, 유통 및 생산의 혁명이 발생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19세기 혁명들은 엄청난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이전에는 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더디었으나,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둘째, 이전에는 기업의 규모가 작았으나, 이후에는 대규모로 성장하고 전문적으로 관리되면서 경영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전에는 철도, 소비재, 백화점, 수직 통합된 철강, 석유 산업과 같은 산업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산업들이 등장하였고, 항공기, 자동차, 화학, 제약 등의 산업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Managerial Capitalism.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전문 경영인들이 기업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 자본주의 형태

산업 재편의 동력 ① AI 기반 생산성 성장

AI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혁명을 촉발한 과거의 혁명들에 필적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매우 유용한 AI 활용 사례로, 회의가 끝난 직후, 자동으로 요약된 회의록을 주변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AI를 통해 절감된 시간을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고객 문의 처리, 소프트웨어 코딩, 디자인 프로토타입 전환 등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니레버의 법무팀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삼성은 고객 서비스에 AI 챗봇을 도입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는 AI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는 신약 개발, 진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스카와전기(Yaskawa Electric)는 AI와 로봇을 결합하여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전망공사(SGCC, 국영 전력 기업)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에너지 관리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PwC의 연구에 따르면, AI는 2035년 세계 실질 GDP를 약 15%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산업 재편의 동력 ② 기후 변화

미래는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 요인도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세계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탄소 집약적 성장 모델은 기후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석 회의 요약 기능이 AI의 생산성 잠재력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처럼, 사이클론, 가뭄, 홍수, 폭염, 허리케인, 토네이도, 산불 등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물리적 기후 위험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고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 관련 손실은 이러한 위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2018년 캘리포니아 북부 캠프파이어 지역의 발화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파산한 전력회사 PG&E의 사례도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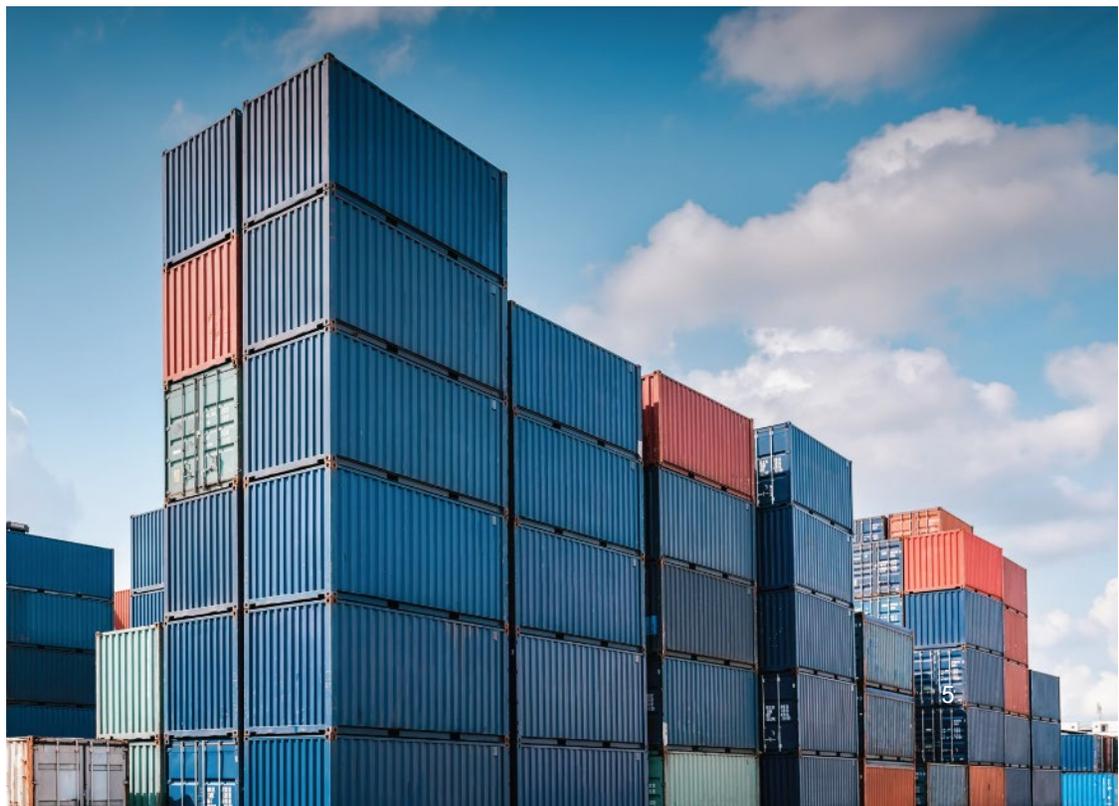
PwC의 기후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영향의 규모를 정량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열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기온 상승이 경작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하에서 2035년까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AI 기반 생산성 증가 효과 없이 계산할 경우 PwC의 경제학자들은 2035년의 세계 실질 GDP가 현재보다 약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 이 수치는 약 26%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산업 재편의 동력 ③ 수요

강력한 메가 트렌드가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면 소비자의 선호도는 변화하며 새로운 가치 제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와 증가하는 소득 불균형은 가정 내 서비스와 배달, 컨시어지 헬스케어 등을 요구합니다. 일본의 테이진(Tejin)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 특히 과거 판매 데이터, 시장 트렌드, 고객 피드백 등을 분석합니다. 코카콜라는 오픈소스 머신러닝 개발 플랫폼인 텐소플로우(TensorFlow)를 사용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찰력을 얻어 마케팅 전략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 PwC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하게 생산되거나 조달된 상품에 대해 최대 9.7%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물리적 기후 위험이 앞으로 비용 증가를 초래함에 따라 기업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과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산업 재편의 동력 ④ 공급

디지털화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기업들 간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AI를 통해 정보 검색과 획득 비용을 줄이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규제 준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제약사와 규제기관 사이의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간소화하여 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글로벌 유통사는 AI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 공급망 운영의 가동 중지 시간을 줄임으로써 다양한 생태계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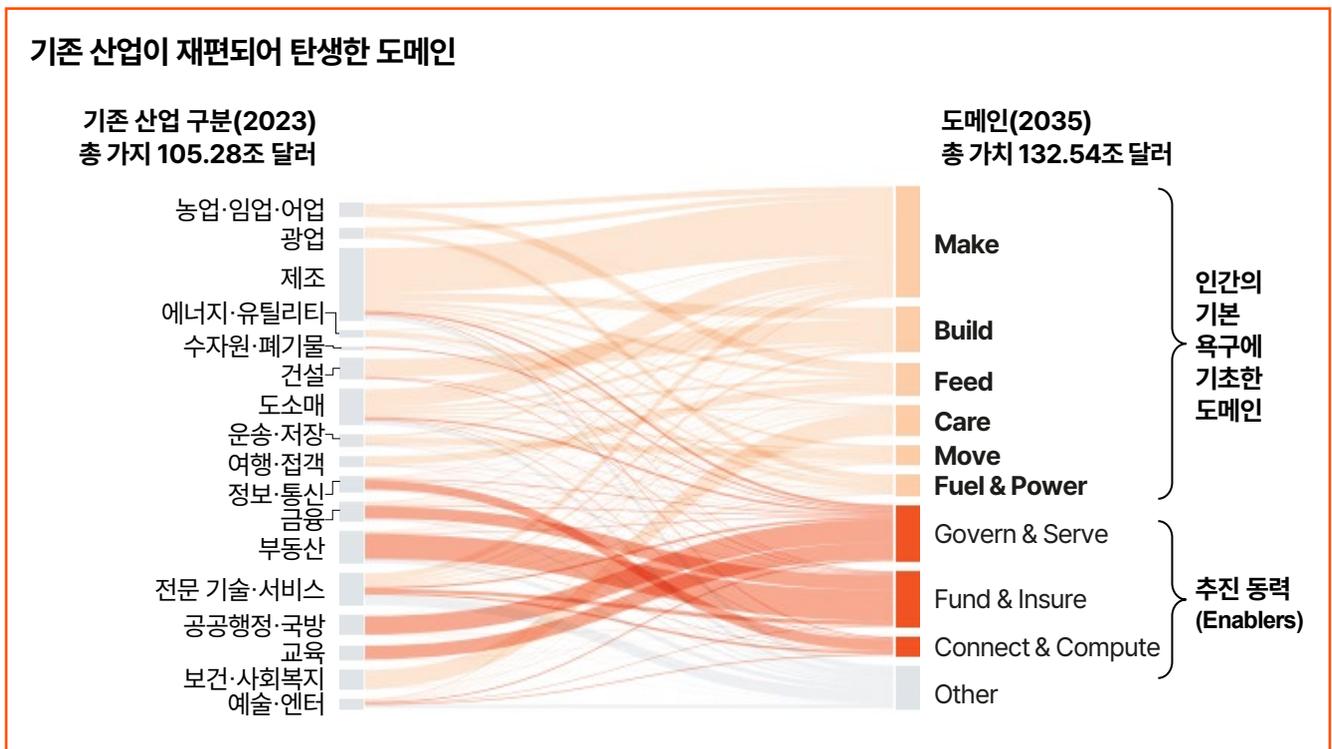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집중

기업들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산업의 조직들과 협업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와 관련 인프라를 개발할 때,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테크 기업, 충전소 운영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생태계의 힘을 통해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전환의 시기일수록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충족하는 방식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 식량, 주거, 건강관리, 이동성 등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들인 펀딩, 연결성, 컴퓨팅 파워, 거버넌스의 필요성 또한 유지될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집중하는 접근 방식은 산업 시스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는 산업 시스템을 도메인으로 재구성하며, 기업들이 생태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정밀농업 혁신 기업인 에어로보틱스(Aerobotics)는 드론, 카메라, 통신 인프라, 소프트웨어, AI 패턴 인식, 머신 비전, 데이터 분석, 과일이 익는 시기에 대한 지식, 해충과 무해한 곤충을 구분하는 지식 등 다양한 역량을 통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 비용을 낮춰 새로운 가치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PwC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 차트의 좌측에 기존의 전통적 산업 구분을, 우측에 2035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매핑하였습니다.



출처: PwC



02

기회와 불확실성

차트에서 분열되고 결합되는 선들은 산업 재편의 핵심에 자리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기회입니다. 새로운 다이내믹스 속에서 기회가 창출되고 기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며 진화할 것입니다. 둘째, 불확실성입니다. 재편을 촉진하는 동력이 거대하지만, 향후 10년간 그 속도와 범위는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미래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하였습니다.

기회

도메인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Build 도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건설, 건물 관리와 같은 전통적인 활동에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건물, 스마트 시티 인프라와 같은 혁신 도메인이 더해질 것입니다. 가령, 스웨덴의 이케아(IKEA)는 AI 기반 데이터 인사이트,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 알고리즘, 예측 분석에 기반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도시 계획 및 스마트 시티 솔루션 분야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PwC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에 Build 도메인에서 전 세계 GDP에 14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예로, 통신 산업은 스마트 시티를 위한 교통 관리 시스템 및 관련 통신 인프라 제공(Move), 웨어러블 기기와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Care), 블록체인 기술로 식품 출처 인증 체계 구축(Feed), 연결된 건물에서 실시간 데이터 및 분석 제공(Build), 그리고 지역 간 에너지 공유와 거래를 촉진하는 국경 간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확장(Fuel & Power) 등 다채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확실성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더불어 오늘날의 산업과 미래의 도메인 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PwC가 최근에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미흡한 규제, 느린 기술 수용,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기를 꺼리는 태도, 그리고 막대한 투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전환의 속도를 늦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중 대표적으로 AI 불확실성과 기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① AI 불확실성

만약 AI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혁신과 성장의 가능성은 줄어들며, 도메인 형성의 속도와 범위 모두를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변수는 리더와 기업이 AI를 얼마나 신뢰하여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AI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와 얼마나 책임감 있게 활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리더들이 내리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향후 AI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PwC는 이러한 변동성을 모델링에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 AI 도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정을 다양하게 설정하였고, 둘째, AI가 현재 사람이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새로운 업무가 얼마나 창출될 것인가에 대한 가정을 다양하게 설정하였습니다.

② 기후 불확실성

기후 변화는 향후 10년 동안 두 가지 중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줍니다. 하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비용이며,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입니다. 즉, 기후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탈탄소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또는 비용 증가로 인해 탈탄소화에 투자할 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PwC는 현재의 기술, 인프라, 투자 수준과 탈탄소화를 위해 요구될 수준의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정에 따르면 연간 청정에너지 투자는 2023년의 1조 8천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4조 6천억 달러로 대폭 증가해야 합니다.

한편, 새로운 투자로 인해 기존의 자산들이 폐기되거나 이른바 좌초 자산(Stranded Assets, 환경 변화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PwC의 기후 변화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기후 전환 시나리오(주로 NGFS¹⁾)와 국제에너지 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비율,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 가격, 좌초 자산 규모 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PwC는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여 제조업, 광업 등에서 탄소 집약적인 자산을 폐기하는 데 따른 비용을 다양한 탈탄소화 시나리오별로 추정했습니다. 이 모형은 좌초 자산이 탄소를 덜 배출하는 자산으로 대체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별 투자, 소비,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녹색금융협의체. 중앙은행과 감독기구의 기후변화리스크대응을 촉진하기 설립



03

3가지 미래 시나리오

앞서 언급한 불확실성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다른 주요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양한 결과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2035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우리는 그중 한 가지 결과를 향해 모멘텀을 쌓아가게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이 직면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각 시나리오는 주요 SI 및 기후 변수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추세가 큰 변동 없이 계속된다는 기본 시나리오(Baseline)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① 신뢰의 시대 (Trust-based Transformation)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첨단 기술의 통합과 책임 있는 활용이 광범위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솔루션과 혁신을 창출합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기준과 협력도 이 시나리오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AI의 경제적 이익은 적극적인 탈탄소화로 인해 발생하는 좌초 자산 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기후 관련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경제 성장 기대치를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 ② 긴장의 시대 (Tense Tran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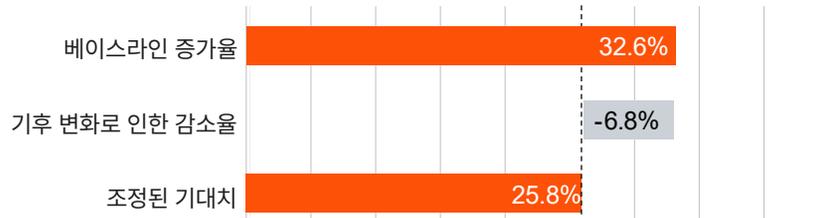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중심이 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제한되며, 기술은 보다 단절되고 신뢰를 받지 못해 AI의 생산성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이 경우 경제 성장은 현상 유지 수준에 그치고, AI로 인한 이익은 물리적 기후 변화로 인한 비용으로 거의 상쇄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더디게 진행되어 단기적으로 좌초 자산은 적게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물리적 기후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나리오 ③ 분열의 시대 (Turbulent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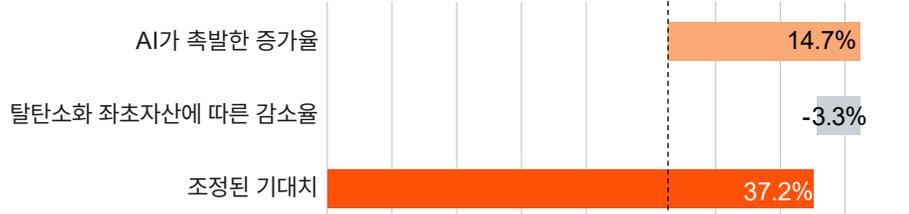
세 번째 시나리오는 로컬 또는 개인 중심으로 분열된 이해관계, 파괴적이고 파편화된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성 노력이 중단된 상황을 가정합니다. 갈등과 불안정, 그리고 증대하는 불확실성은 기술과 그로 인한 경제적 혜택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일이 새롭게 만들어질 일보다 많아져 고용이 감소하며,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소홀히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이나 공정무역을 둘러싼 위기감은 지정학적 동맹을 분열시키고 국제 협력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성장이 기본 전망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2035년 시나리오별 실질 GD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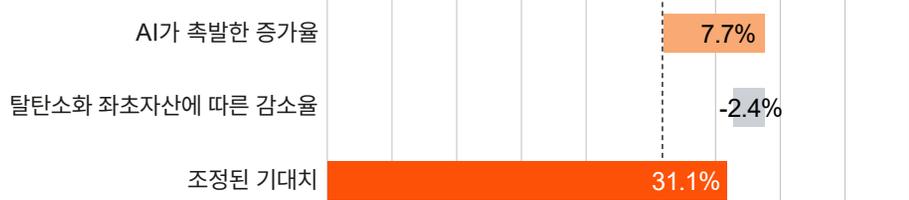
기본 시나리오 (Base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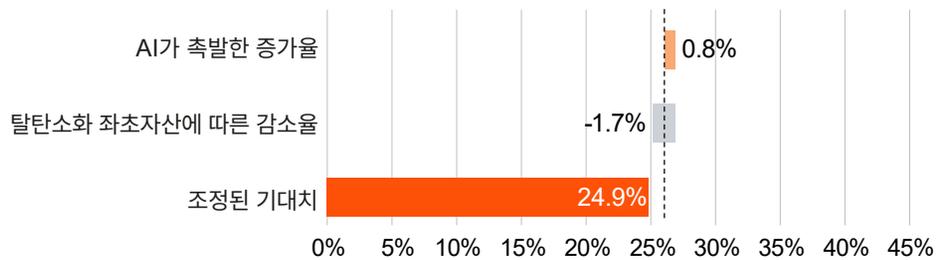
신뢰의 시대 (Trust-based Transformation)



긴장의 시대 (Tense Transition)



분열의 시대 (Turbulent Times)



출처: Pw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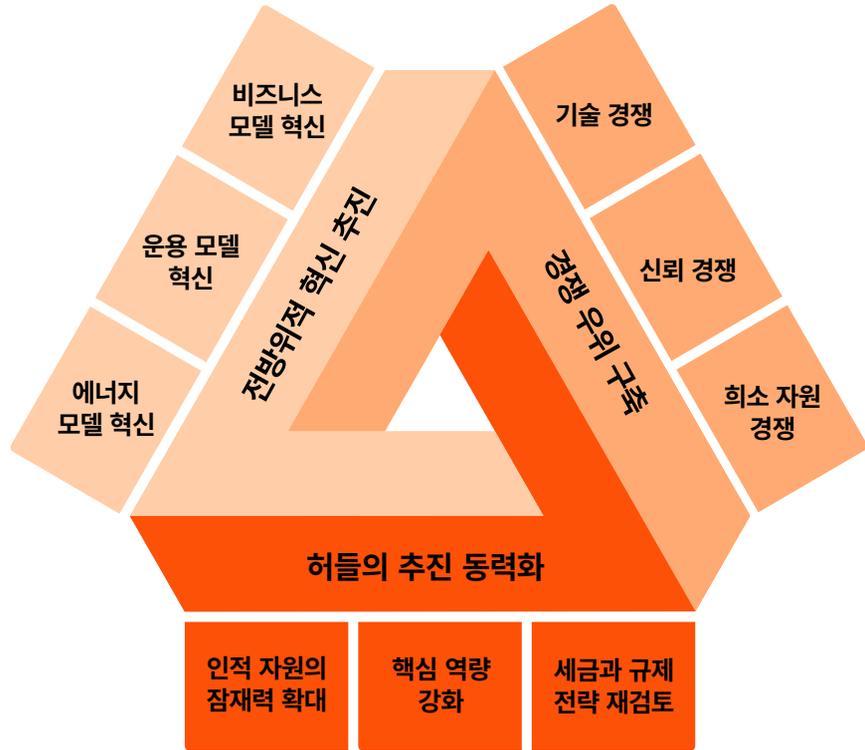


04

재창조를 위한 어젠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리더들은 지금부터 혁신, 경쟁 우위 확보, 그리고 재창조를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를 위한 포괄적인 어젠다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영 환경은 급변하고 있기에 기업도 역동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 운영 모델, 에너지 모델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술, 신뢰, 희소자원에 대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존 관행, 역량 격차, 의사결정 실패, 비즈니스 목표와 규제 현실 간의 불일치와 같은 재창조를 가로막는 허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재창조를 위한 우선 과제



출처: PwC

효과적인 실행 계획은 기업의 현재 상태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기업의 성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의 성과가 내일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기업은 새로운 도메인에서 다른 기업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뒤처진 기업은 데이터를 현대화하고 기술 부채를 해결하지 않는 한 AI를 완전히 활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현재 뒤처진 기업들은 나중에도 더 뒤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영을 위한 마인드셋

리더가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불확실성, 복잡하게 얽힌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큰 기회들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수용하라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리더들은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할 도메인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도메인의 규모, 그 안에 내재된 기회 크기, 그리고 혁신의 속도는 향후 10년 동안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더 큰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큰 몫을 차지하기가 수월하기 마련입니다. 한편, 덜 유리한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산업 및 부문 간 경계를 넘어 자사의 역량을 활용하고 통합하는 기업들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성장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동시에, 개별 기회의 매력도는 우리가 선택하게 될 미래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Build라는 주제를 다시 살펴보면, '신뢰의 시대' 시나리오에서는 연결된 건물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반면, '분열의 시대' 시나리오에서는 사회적 불안이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건물 피해를 보장하는 특화된 보험 상품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유효한 아이디어도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의 재활용이나 지능형 조명 시스템의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Build 도메인 내 시나리오별 아이디어

| 신뢰의 시대 | 긴장의 시대 | 분열의 시대 |
|--------------------------------------|------------------------|---------------------------------------|
| 설계사 대상 클라우드와 AI 기반의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 사회적 혼란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위험을 보장하는 특화된 보험상품 |
| 연결된 건축물들로부터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 |
| | 모듈러 건축을 위한 공급사 | |
| |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어 | |
| | 건설 4.0(스마트 건설) 시대의 자문사 | |

출처: PwC

거시적 관점을 견지하라

변화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리더는 복잡한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와 기타 첨단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모델의 혁신 가능성을 넓고 깊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가치를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알 것입니다. 또한, 모빌리티, 제조업, 에너지 분야에서 AI의 발전과 모빌리티, 제조, 에너지 분야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그리드, 에너지 저장소, 수소 그리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맥락을 통찰하는 리더는 순환 구조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모델에서의 혁신이 기술 혁신을 자극하여 다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에너지 및 공급망 혁신은 기후 회복탄력성을 높여 산업 구조 전환이 더 빨라지며, 산업 재편은 선도사에서 패스트 팔로워로 빠르게 확산하는 등의 순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하급수적 변화에 대비하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점진적이 아닌 빠르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리더가 사고방식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AI와 다른 첨단 기술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기후 변화 역시 단순히 단계적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는 이 두 가지 흐름을 반영하게 될 것이며,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질문 자체를 잘못 던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AI를 사용하기 위해 충분한 청정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전체 경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일 여유가 있을까?'가 아니라, 'AI를 통해 얻는 혜택을 어떻게 연결하여 기후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자원 부족이나 제로섬 경쟁의 틀 안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Contacts

문 홍 기 Partner

hong-ki.moon@pwc.com
02-709-0394

임 기 호 Partner

ki-ho.im@pwc.com
02-709-0680

임 상 표 Partner

sang-pyo.yim@pwc.com
02-709-0651

이 성 균 Partner

sung-kyun.lee@pwc.com
02-3781-1450

차 경 민 Partner

kyung-min.cha@pwc.com
02-3781-9392

유 원 석 Partner

won-seok.yoo@pwc.com
02-709-4718

백 종 문 Partner

jong-moon.baek@pwc.com
02-3781-3476

김 은 섭 Partner

eun-seop.kim@pwc.com
02-3781-9749

구 본 재 Partner

bon-jae.koo@pwc.com
02-3781-1435

김 창 래 Partner

chang-rae.kim@pwc.com
02-3781-1412

김 재 환 Partner

jaehwan.kim@pwc.com
02-3781-9671

박 현 출 Partner

hyunchul.park@pwc.com
02-709-0412



S/N: 2507C-RP-084

© 2025 PwC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